

## 제3강 좋은 책 고르기 자녀의 바른 독서지도

### 1. 왜 읽혀야 하는가?

자식에 관계된 이미지 중에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는 아마 책을 읽고 있는 자녀의 모습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책을 읽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희망적인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독서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이미 부모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독서의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책의 내용이 주는 사상과 철학으로, 이는 독자의 인격을 바르고 풍부하게 해준다. 둘째는 책을 읽는 동안에 길러지는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비판력, 판단력 등의 사고력의 신장으로,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초기능이 된다. 책의 내용이 주는 이 점의 문제는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독서하는 동안에 길러지는 사고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1)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비유를 풀어보면 자식에게 결과를 주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을 다시 요즘의 교육현상에다 대입시켜 보면, 머리 속에다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이란 곧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인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에서 각종 시험이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입학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고 있나’ 보다는 ‘알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즉 알고 있는 지식의 고정된 양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 가능성은 다름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방향이 바로 대학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사고력을 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읽는다는 것은 의미의 재구성 작업이다. 독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든 대학생이든간에 읽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면, 그는 글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의미파악이 동반되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 단순한 글자 읽기에 불과하다. 의미의 파악은 그냥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독자는 글자와 단어를 판독해야 하고, 글자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들 여러 단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정보들보다 한 차원 높고 추상적인 중심내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에 대한 비평도 해야 한다. 이러한 독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독자의 두뇌는 맹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한다.

읽기 활동의 전 과정은 글자로 표현된 것을 장면으로 상상해야하고, 단어가 주는 힌트를 가지고 상황을 상상해야 하고, 글 속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하고,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찾아야 하고, 글의 내용이 옳은 것인가를 비판해보아야 하고, 글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잘못된 점을 마음속으로 수정해야 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쓸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독자의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예부터 읽은 책의 양과 사고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는 독서연구가들에 의하여 증명되기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 사회에는 '책을 읽는 국민은 발전하고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퇴보한다.'는 문구가 유행했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유행시킨 것이니 자연스레 유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후 그들은 4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 2)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읽더라도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은 서로 다르다.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께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들이 선생님에게 얻은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것은 독자의 사전지식이 독서과정과 독해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주체는 독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지식의 다소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글의 의미는 씌어있는 문자에 있는 않고 독자의 머리 속에 있으며, 독서는 언어기호의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글을 읽고도 얻는 게 적은 사람들은 글자나 단어의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러시아는 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산화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러시아의 동화나 소설,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는 학생은 제정 러시아 짜르 정권 300년 동안의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과 귀족들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억눌린 자들의 폭동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평등을 부르짖으며 공산화 되었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게 된다.

이러한 추론의 능력은 바로 독서가 주는 사전지식에서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독

서량의 다소가 읽기능력의 다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읽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의 양 때문이다. 결국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권할 확실한 보물은 독서이다.

### 3) 읽기 능력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나이가 같다고 읽기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읽기 능력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몸은 어른인데 독서능력은 어린 아이인 사람들이 있고, 몸은 아이지만 독서능력은 어른인 경우도 있다. 독서능력은 독서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던 학생이 종종 대학에 가서는 열등한 학생으로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까지의 공부가 인류가 이루어놓은 과거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인데 반하여, 대학의 공부는 가능한 세계에 대한 탐구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의 교수들은 그동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커다란 어린아이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 고통을 당해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의 자격을 기억하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재지 않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고력의 양으로 재겠다는 의도를 가진 시험이다. 사고력은 읽기 능력에 비례한다.

## 2. 무엇을 읽힐 것인가?

- 1)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담긴 책
- 2)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가 담긴 책; 성장소설
- 3) 탐색 스토리가 담긴 책
- 4) 상승 모티브가 있는 책
- 5) 높은 교육성을 가진 책
- 6)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책
  - 암시적 발단
  - 남다른 주인공
  - 수평적 문장
  - 열린 결말
  - 독자의 몫
  - 아름다운 책 (그림과 종이, 글씨)

### 3. 어떻게 읽힐 것인가?

#### 1) 발달 단계에 맞는 책을 읽힌다.

1-2세의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자장가와 같은 '자장 이야기'를, 3-4세의 유아전기에는 반복어가 포함된 전래동요를, 4-5세의 유아후기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 이야기를, 6-8세의 아동은 미운오리새끼나 인어공주와 같이 모방적 상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를, 9-11세에는 합리적 사고가 형성되므로 우화, 신화, 영웅전이나 모험소설을, 12-15세에는 시, 소설, 역사물, 탐정물, 공상과학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을 권한다.

#### 2) 치료독서에 기여하는 책을 읽힌다.

#### 3) 부모도 함께 책을 읽는다.

#### 4)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를 위하여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상상하고 추리하고 비교하는 등의 생각하는 활동은 딱 질색이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독서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일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지능이나 사고력이 낮아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들에게 책은 고통이며 두려움이다. 두 번째 부류는 만화나 TV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다. 만화나 TV는 시각적인 매체이므로 보면서 장면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매체들은 그림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상상하는 능동적인 활동이 TV나 만화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체에 습관이 된 아이들은 사고력을 요하는 독서활동을 귀찮게 여기게 되어 기피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사고력 신장의 기회가 줄어들고 열등아가 되기 쉬울 것이다.

독서를 싫어하는 이 두 가지 타입의 어린이를 위한 치료법은 동일하다. 아주 쉬운 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 책으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여 재미를 붙이게 하는 방법이다.

#### 5) 독후감 쓰기의 이익과 손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것은 우리의 독서교육이 오랫동안 즐기차게 사용해온

방식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볼 때 매우 훌륭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책을 읽고 그 내용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하여 회상의 방법을 통하여 글로 적어 놓는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독후감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문자로 적는 방법, 도식화하는 방법, 말로 토론하는 방법,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유독 문자로 적는 방법을 고집하여 왔다. 문자로 적는 것보다는 말로 토론하는 방법,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도식화하는 방법이 쉽고 재미 있는 방법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책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로 독후감 쓰기가 싫어서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많았다. 이것은 지금 한국의 어린이들이 문자로 쓰는 독후감에 진력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독후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4. 좋은 책 고르기

독서지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알맞은 책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읽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 알맞은 책이란 보편적인 좋은 책의 요인은 물론 읽는 어린이마다의 개별적인 요인도 고려한 책을 말한다.

##### 1) text요인

- ① 형식면에서 - 치밀한 구성, 간결하고 미적인 문체
- ② 내용면에서 - 재미있는 책; 암시적 발단, 개성적인 인물, 흥미로운 사건, 원하고 보편적 가치를 담은 책, 높은 교육성이 녹아있는 책

- ◎ 좋은 어린이 책이란 - 풀 아자르/책 어린이 어른에서  
.어린이들의 취향에 맞추어 쓰여진 책  
.감상이 아닌 감수성을 키워주는 책  
.주입식 지식을 주는 대신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책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책  
.무엇보다도 예술의 본성에 충실한 책

##### 2) 독자 요인

- ① 독서능력에 따라 - 동 학년이라도 아동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다.
- ② 발달단계에 따라 - 성장에 따라 독서능력도 함께 성장하므로 그에 맞는 책을 선정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 때는 대개 건강한 아이가 인지능력이 빠르게 발달한다.

③ 흥미도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정한다.

### 3) 장르별 좋은 책 고르기

#### (1) 그림책

그림책은 그림만으로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아름다운 책이다. 어린 시절 그림책을 많이 보며 자란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평생 동안 간직하게 된다. 또한 어린 시절 책을 통한 감동과 즐거움은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습관을 길러 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 즐거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때로는 어린이가 진정 알고자 하는 깊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책을 숫자나 글씨를 알기 위한 공부로 활용한다면 책을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면 작가의 문학성, 예술성, 상상력, 올바른 가치관 등이 그림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해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은 유치원 시절에, 동화는 초등학교까지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책과 동화책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보는 책이다. 좋은 그림책, 좋은 동화책 한 권을 실제로 읽어보자. 그림책과 동화책이 어린이만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읽고 감동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에게 외국의 우수한 그림책을 원서로 읽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림책을 보면서 생겨나는 이미지화는 책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고, 그림책의 정제된 언어는 글쓰기의 문장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 문장과 그림이 서로 완전히 일치할 것.
- 표면적으로 눈을 끄는 귀여움이나 화려함은 그림책에 불필요하다.
- 그림이 얼마만큼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 그림책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시간, 장소, 인물의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 문장이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도 매우 중요 : 문장에 대한 아름다움, 정확성
-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서술부분은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보아서 차례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문장.

<곰사냥을 떠나자>, <비오는 날>, <피터의 의자>, <벽>, <작은집 이야기>,  
<민희네 집>,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커다란 순무>, <지각대장 존>

#### (2) 창작동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창작 동화를 먼저 읽히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현재의 또래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우리의 창작 동화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근대 우리나라 창작 동화들까지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다. 좋은 문학 작품들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들을 알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어린이가 주인공이 된 창작 동화를 쓰는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다. 외국의 작품에 비해 문학성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으나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역사가 짧음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창작 동화를 사랑하고 많이 읽을 때 우리 아동문학도 더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간행된 우리 창작 동화와 더불어 외국의 다양한 창작 동화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아이들이 가보고 싶어 하고, 관심 있는 여러 나라의 책들을 골라 읽게 하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물 대부분의 책들은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발표된 작품들을 골고루 골라 읽혀야 할 필요도 있다. 아이들은 이 책들을 통해 여러 가지 간접 체험과 다양한 나라, 인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세계화를 위한 준비는 세계 각 나라에서 발표되는 좋은 문학작품을 읽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 명작은 주로 다이제스트 판으로 축약된 내용들이며 그것도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을 재 번역한 것이 많아 원작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잘못 변형된 작품이 많다. 특히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읽었던 세계명작들은 서양의 백인 문화에 대한 우월감, 제국주의적인 가치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작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요즘은 완역본의 출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이상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 도서 중 세계 명작류의 경우는 전문 번역가에 의해 제대로 번역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시공을 뛰어 넘어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담긴 책이어야 한다.
- 어린이의 성장육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독서를 하는 동안 좌절감을 치유하며 성장으로 이끌어 주는 책이어야 한다.
- 동화 속에 담겨진 현실의 원리와 진실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탐색구조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 책을 읽고 고통과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책.
-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암시적 발단과 열린 결말 구조를 가진 책
- 수평적이고 간결한 문장, 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의 몫이 남겨진 책이 좋은 책이다.

### (3) 지식에 관한 책(과학, 환경이야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하여 바탕이 없는 지식 책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편집자들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식에 관한 책을 선정할 때는 작가의 전문성 고려, 어린이 수준에 맞게 씌어져 있는지, 어린이들의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삽화, 도표 등이 충실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외국의 과학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창작 동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전하는 지식책의 출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동 문학가인 포울 아자르는 『책, 어린이, 어른』이라는 저서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눌러 버릴 만큼 많은 재료로 짖 채운 책이 아니고 마음속에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그 씨앗이 안에서 커가는 지식의 책을 사랑한다’ 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은 아주 많이 출판되고 있으나 특히 중학생, 독서 능력이 낮은 고등학생들이 봐야 할 청소년 도서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중, 고등학교 학생, 교사, 사서들에 의해서 우수한 청소년 출판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 환경

- 생태계 구조와 원리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내용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책
- 과학적 근거보다는 도덕심에 호소하는 수준의 내용에 머무르는 정도로는 부족
- 외국의 실례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주는 책

<아톰>, <거인사냥을 조심하세요>, <하나뿐인 지구>, <숲은 누가 만들었나>, <최열아저씨의 지구촌 환경이야기>, <뒤희르 이령지의 하소연>, <미나마타의 붉은 바다>, <어린이 생태학>, <나무를 심은 사람>

#### \* 과학

- ① 과학 동화 : 인간 생활과 바람직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과학을 정확한 지식과 명확한 설명의 재미있는 문학으로 완성시킨 책.  
과학과 동화의 접목으로 어린이의 정서와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내용
- ② 과학 상식책 : 질문과 답, 그리고 설명의 틀로 갖추어진 것이 많다. 질문이나 구성이 과학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흥미 거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③ 과학책 : 동화나 퀴즈 같은 간접적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며 소개하는 책



- 자칫 즐거움이 결여된 마치 참고서와 같은 책은 좋지 않다.
-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심을 길러주는 책
- 단편적 과학 지식보다 총체적인 과학자세와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책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발행년도가 오래된 것은 진부한 내용일 수 있다.

#### (4) 경제

- 지식이나 상식보다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경제현상과 경제원리에 대한 내용을 동화다운 재미를 통해 들려주는 책
- 경제학 용어와 개념 설명을 위해 억지상황을 만들어 낸 무리가 보이는 책보다는 동화를 통한 지식이나 교훈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책
- 부자가 되기 위한 책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벌고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 담긴 책
- 경제활동으로 주변과 사회에 끼칠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르쳐 주는 책

<떡배 단배>, <원숭이와 꽃신>, <자본주의 공산주의>, <한국.한국인.한국경제>, <피노키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 (5) 인물.역사 이야기

학생들에게 역사, 인물 이야기를 권해 주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게 가지고 비판의식을 기르며 세상을 바로 보고 올바르게 살수 있는 힘을 길러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이야말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체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일반적으로 역사책은 과거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 철학자 에드워드 할렛 카알의 '역사는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서 굴절되어 오는 것' 이라는 말처럼 어떤 작가가 어떤 시작으로 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책이 왕조 중심, 양반중심, 지배계급 중심으로 쓰여 졌다면 요즘은 서민들의 삶 중심, 인간물질 생활의 발전 중심, 각 전문 분야별 인물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물이야기도 과거에는 대부분 위인은 특별하게 태어나고 어릴 적 부터 뛰어난 행동을 하는 위인 예정론에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실제 인물의 삶을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기초로 하여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재조명하여 쓴 인물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역사와 인물을 통한 인간 사회의 변화와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너무 어린 자녀들에게 인물 이야기를 많이 읽히려 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겨 날 초등 고학년 이상에서 역사이야기와 인물이야기를 병행하여 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중학교에 가서 세계사를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역사적 사실을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여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책
- 시대상이나 생활상, 인물 묘사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책 (예: 광주사태-광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
- 역사의 줄거리만을 설명한 책은 흥미가 없다.
- 인간의 생활상, 시대의 변화된 모습, 역사적 모험을 재미있게 펼친 이야기
- 지배자는 물론 당대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이 함께 들어있는 책 (지배자 중심 사관-민중사관으로)

## (6) 옛이야기

재미난 옛날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중에는 유년시절 옛이야기 듣기가 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했고, 자신의 작품에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재가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옛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민속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특히 옛이야기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옳은 일에 대한 믿음 갖기, 조상들의 삶의 지혜, 자연과 목숨을 소중히 하는 마음 갖기, 세상 바로 보기 등 우리가 자녀야 할 착한 심성을 깨닫게 된다.

옛이야기는 우리민족의 문화와 정서가 그대로 녹아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시대 그 지역의 정서가 배여 이야기는 살이 붙고 고쳐지면서 민족의 정서가 담긴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재창조되는 옛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게 된다.

요즈음은 어린이 대상의 옛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청소년, 성인을 위한 옛이야기 책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참다운 정의 실현을 보여주는 책
- 억압에서 벗어난 민중이 참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
- 풍자와 해학, 살아있는 입말로 생동감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이야기
- 유교적 덕목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내용

- 우리 정서에 맞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야기

#### (7) 인물이야기

- 역사자료를 토대로 사실에 근거한 인물이야기
- 작가의 관점에 대한 편견이나 과장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
- 위인 예정론과 과장된 표현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
-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인물전도 골고루 읽는 것이 좋다.

<기업인 유일한>, <과학자 석주명>, <언론인 장준하>, <상식을 넘은 청개구리>, <신념을 지킨 외톨박이>,<교과서 속 큰 인물 이야기>

#### (8) 성교육 동화

- 정확한 성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내용
- 신체변화에 따른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책
- 남녀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
- 인간 교육으로서의 성보다는 단편적 순결교육에 그치거나 성의 금기시, 수치심, 신비화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 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아기씨 꽃씨 사랑의 씨>,<흰토끼와 검은 토끼>, <엄마가 알을 낳았대>,<몸이 자라면 마음도 아픈가요?>

#### (9) 만화

- 내용, 말, 그림이 잘 어우러져 보는 재미에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책
- 상상력, 창의력을 길러주고 감동과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
-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되 뚜렷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 가는 내용
- 작가의 개성이 살아있으며 안정감 있고 밝은 분위기의 그림
- 우리 이야기는 우리 겨레의 모습과 표정에 어울리는 그림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우동 한 그릇>, <먼 나라 이웃나라>, <오세암>, <가시고기>

#### ◎ 좋지 않은 만화

- 흥미위주의 허무맹랑한 내용이나 억지웃음을 강조하는 내용  
특히 고전의 해학과 풍자를 단순한 폭소로 처리한 고전만화
- 유행어, 속어, 비어를 남발하거나 저속하고 불손한 말, 외래어를 남용한 작품
- 시대적 유행이나 외래문명을 지나치게 좇아가려는 작품
- 불쾌감, 혐오감, 공포, 긴장, 살벌함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그림